

프로야구 갑작스런 전반기 종료가 아쉬운 KIA 선수들



김호령

고졸 루키 포수 권혁경

“이제 프로 데뷔 했는데...”

3경기 연속 홈런 김호령

“이제 타격에 눈 떴는데...”

최형우 “명예회복은 후반기에”

KIA 타이거즈에서 갑작스러운 리그 중단이 가장 아쉬운 선수는 누구일까?

7월 6연승을 달리던 ‘호랑이 군단’은 두산·NC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리그 중단’으로 아쉽게 질주를 멈췄다. ‘에이스’ 브룩스를 중심으로 마운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타선도 상승세를 탔던 만큼 KIA에는 아쉬운 결정이 됐다.

이번 결정이 가장 아쉬울 선수는 ‘고졸 루키’ 권혁경이다. 지난 11일 권혁경은 KBO리그 화제의 인물이 됐다. 팀 내 밀집접촉자 발생으로 포수 두 명이 동시에 빠지면서 고졸 포수 권혁경은 선발로 프로 데뷔전에 나섰다. 휴식날 밥을 먹다가 급히 1군으로 올라온 권혁경은 데뷔전 과정은 물론 경기 결과까지 좋아서 더 화제가 됐다.

입단 동기 이외리와 ‘2002년생 배터리’를 구성한 권혁경은 1회 황재균의 도루를 저지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권혁경은 9회까지 마스크를 썼고, 팀의 무실점 경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공도 받았다.

한승택, 김민식의 엔트리 말소와 백용환의 이적 그리고 이정훈도 1루 포지션 변경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권혁경에게 ‘기회의 시간’이 열리는 것 같았다.

권혁경도 데뷔전이 끝난 뒤 “이렇게 갑자기 1군에 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 경기장에 나올 때만 해도 긴장했는데 막상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 나오니 덤덤했다”며 “경험이 없는 신인이니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리다. 많은 경기 나가면서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리그 중단으로 권혁경은 1군에서의 두 번째 경기는 진짜 KBO리그 경기가 아닌 14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치렀다. 권혁경은 이날 외국인 선수 멩덴과 호흡을 맞췄다.

김호령에게도 일찍 끝나버린 7월이 아쉽다. 김호령은 7월 6연승 주역 중 한 명이다.

6월 29일 NC전에서 시작한 홈런포가 7월 1일과 2일에도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타순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이 나오면서 KIA 공격에 힘이 붙었다.

김호령은 7월 6경기에서 22타수 9안타로 0.409의 타율을 기록했다. 2개의 홈런을 더해 7타점을 만들었고, 3차례 3안타 경기도 만들었다.

매년 뜨거운 타격감으로 눈길을 끄는 ‘김호령의 시간’은 있었다. 하지만 이내 견잡을 수 없는 하락세를 경험하곤 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타격에 눈을 뜨고 있던 만큼 멈춰버린 그라운드가 아쉬웠다.

돌아온 베테랑 최형우에게도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최형우는 KIA와 FA 재계약을 하고 팀 내 최고참으로서 역할을 다시 맡았다. ‘구준함’과 ‘건강함’이 장점인 선수지만 망막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6월까지 34경기에 나온 최형우는 127타수 23안타, 0.181이라는 최악의 타율을 기록했다. 5개의 홈런은 기록했지만 18타점에 그치는 등 팀의 중심선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면서 두 차례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최형우에게는 잊고 싶은 봄이 됐다.

그러나 7월 복귀 후 최형우의 모습이 달라졌다.

1일 NC와의 복귀전에서 멀티히트로 3타점을 만들며 5연패를 끊어낸 최형우는 11일에는 테스피아네를 상대로 결승 투런을 만들고 6연승을 이었다.

최형우는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능태가 거의 100%가 됐다. 예전과 타격감은 비슷하지만 자신 있게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기 조기 종료로 최형우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은 뒤로 미뤄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권혁경

NC 박석민·권희동·이명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
박민우 ‘태극마크’ 반납

‘방역수칙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NC 박석민이 입을 열었다. 박석민은 14일 구단 사과문을 통해 “5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와 함께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지인) 2명 등 총 6명이 숙소에서 음주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와 숙소에서 분식을 시켜먹었다”고 밝힌 박석민은 “같은 숙소에 투숙한 지인의 연락을 받고 추가로 이들과 함께 룸서비스로 치맥(치킨 맥주) 세트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8일 이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NC가 상황을 밝히고 사과에 나섰다지만 이번 일로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서울 강남구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 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NC 선수 등 확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민우는 이번 일로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마이너리그서 첫 패배

양현종(33)이 마이너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록 익스프레스 소속으로 뛰는 양현종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의 델 다이아몬드 구장에서 열린 앨버커키 아이소투스(콜로라도 로키스 산하)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5안타를 맞고 3실점했다. 볼넷은 내주지 않았고, 삼진은 3개 잡았다. 라운드록은 2-3으로 패했고,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5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임원상 올림픽 활약 기대되네

아르헨티나와 친선전 동점골
메달 안고 팀 에이스 복귀를

광주FC 임원상이 반전의 올림픽을 위한 위밍업을 끝냈다.

남자 축구 올림픽대표팀에 발탁된 임원상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친선경기에서 2-2 무승부를 만드는 벼락같은 선봉이었다.

1-2로 뒤진 후반 47분 이장인의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가 쳐냈고, 공은 페널티박스 밖 오른쪽에 있던 임원상 앞으로 향했다. 공을 잡은 임원상은 이내 오른쪽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대를 갈랐다.

여름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었다. 놀라운 스피드로 ‘임살라’로 통하는 임원상이지만 이번에는 특급 슈팅 실력으로 어필했다.

여러 의미가 있는 골이다.

난적을 상대로 한 ‘모의고사’에서 팀의 패배를 막은 이골은 임원상이 23세 이하(U-23) 대표팀에서 기록한 첫 골이기도 하다.

임원상은 20세 이하(U-20) 대표팀에서는 31경기에 나와 9득점에 성공했지만, U-23대표팀에서는 이날 경기 전까지 14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기다렸던 골을 넣은 임원상은 올림픽 무대를 통해 올 시즌의 아쉬움을 날릴 준비를 끝냈다.

임원상은 지난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광주의 핵심 멤버로 꼽혔다.

임원상은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 개막 직전 입었던 부상의 아픔을 딛고 23경기에 출전해 7골 2도움을 기록했다.

또 올림픽축구대표팀 멤버로 축구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나서 벤투 감독의 눈길도 사로잡으며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팀의 미래에서 대



13일 경기도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 후반전 임원상이 동점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국의 미래로까지 성장했지만 올 시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임원상은 올 시즌 12경기에 나와 2득점에 그쳤다. 초반 컨디션은 좋았지만 6라운드 제주원정에서 무릎 부상으로 임원상의 시계가 멈췄다. 부상으로 올림픽 대표팀의 일본 원정에 나서지 못한 임원상은 15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다시 K리그 무대에 섰다.

광주는 매 경기 박수받는 승부를 펼치고도 임원상의 부재로 ‘골가뭄’ 속에 최하위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광주는 임원상 없이 오는 21일 강원전을 시작으로 K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서 내달 8일 서울전까지 4경기에서 임원상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팀으로서 임원상이 간절하게 바라는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천천히 합류해도 나쁠 게 없다. 대표팀 활약으로 자신감을 쌓고, 병역 문제까지 해결하고 ‘에이스’로 돌아오는 게 광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그만큼 마침내 터진 임원상의 골이 반갑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디오플 출전 장타왕 디셈보
장타 포기않고 웨지로 승부

디오플(브리티시오플) 골프 대회가 열리는 영국 링크스 코스는 장타자보다는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선수가 더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거칠고 역센 러프, 빠르고 단단한 페어웨이와 깊은 향아리 bunker 등 장타자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15일 영국 잉글랜드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조지스 골프클럽(파70)에서 개막하는 디오플에 출전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장타왕 브라이슨 디셈보(미국)는 그러나 장타의 이점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연습 라운드를 치른 뒤 디셈보는 “(파4홀에서) 가능하면 티샷을 멀리 쳐놓고 다음 샷을 웨지로 처리하는 내 방식대로 경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디셈보는 작년부터 비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뒤부터는 350야드 안팎의 장타를 날려놓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린을 공략하는 이른바 ‘bomb and gouge’ 전법으로 PGA투어를 휩쓸었다.

괴력의 장타자로 변신한 뒤 거든 3차례 우승은 모두 장타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따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길고 역센 러프로 무장한 US오플에서도 ‘bomb and gouge’ 공략법을 강행해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차례 디오플에서 두 차례 킷 탈락했고 한번은 공동 51위라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던 디셈보는 장타자로 변신한 뒤 이번이 처음 치르는 디오플이다.

“어디서나 장타를 치면 유리하다”면서 장타력에 기대감을 보인 디셈보는 하지만 “장타가 어디서나 다 좋은 건 아니다. (디오플에서는) 장타라도 정확하게 쳐야 한다. 300야드를 날려도 킷 홀 속에 떨어지면 그린 공략이 쉽지 않다. 또 퍼트를 잘해야 한다”고 장타에만 의존하지는 않겠다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드라이버 대신 2번 아이언으로 티샷해 링크스 코스를 정복했던 타이거 우즈(미국)의 경기도 눈여겨봤다면서 “타이거의 방식에 100% 동의한다”고 말해 아이언 티샷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